

## “하나의 문장 아닌, 거대한 물결” | 전북수필가협회 창립대회 성료

초대 회장에 윤철 작가 추대  
 도내 15개 단체 400여 수필가 결집  
 ‘수필의 정체성·위상 제고’ 선언

강물은 홀로 흐를 때 소리가 없지만 지류들이 모여 큰 강을 이룰 때 비로소 대지를 적시는 웅장한 물결이 된다.

전북 수필 문단이 각자 흩어져 있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거대한 문장의 물결을 만들어냈다.

24일 오후 2시,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은 전북 각지에서 모여든 150여 명의 수필가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넘쳤다.

이날은 도내 15개 수필 문학 단체가 연대하여 결성한 ‘전북특별자치도수필가협회(이하 전북수필가협회)’가 공식적인 창립을 알리는 역사적인 날이었다.

이번 협회 창립은 단순한 단체의 탄생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1970년대부터 전북 수필의 근간이 되어온 전북수필문학회의 46년 전통과 연속성을 총괄 승계하면서, 도내 시·군 단위 및 풍인 단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체계적인 ‘문학 공동체’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경과보고에 나선 준비위원회는 “지난 2025년 정기총회에서 협회 전환을 결정한 이후, 수차례의 준비 회의와 발기인 대회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며 “지역 수필가들의 창작 역량을 결집하고 도민과 호흡하는 열린 문화 공동체를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총회 결과 협회를 이끌 초대 사령탑으로는 윤철 작가가 만장일치로 추대되었다.

윤철 회장은 그간 전북수필문학회장과 수필가대회 준비위원장을 역임하며 탁월한 행정력과 친화력을 보여준 인물로, 전북 수필의 중흥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을 받고 있다.

윤철 초대 회장은 취임사에서 ‘연대’와 ‘자부심’을 강조했다.

그는 “문학은 본래 홀로 하는 고독한 싸움이지만, 오늘만큼 우리가 혼자서 아님을 확인한다”며 “흩어져 있던 400여 수필가의 마음이 모여 이제 하나의 강이 되어 흐르기 시작했다”고 감격 어린 소회를 밝혔다.



24일 오후 2시,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전북특별자치도수필가협회(이하 전북수필가협회) 창립총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한 수필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히 윤 회장은 “수필은 인간의 영혼을 치유하는 가장 진솔한 문학양식에도 문단의 번두리에 머물러야 했던 아픔이 있었다”고 진단하며, “앞으로 협회는 회원들의 창작 능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창작의 요새이자, 수필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든든한 이익 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선언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는 1부 정기총회와 2부 창립대회로 나뉘어 풍성하게 진행되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AI가 글을 쓰는 시대일수록 삶의 고뇌와 성찰이 담긴 인간의 글쓰기는 더욱 소중해진다”며 협회 창립을 축하했다.

우병기 전주시장 예비후보도 행사장을 찾아 “수필가들의 문학 열정에 경의를 표하며 협회 창립을 축하했다. 그리고 ‘자신이 도를 열어야 할 때면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인협회와 관남의 수필분과 회장과 백봉기 전북문인협회장 등 문단의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전북 수필의 새로운 출발에 격려의 인사를 하며 힘을 보탤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전북 수필가 헌장’ 낭독이었다. 신영규, 한정순 수필가와 함께 자리에 참석한 수필가 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진실한 언어로 시대를 기록하고, 독자의 아픔을 위로하는 문학적 양심이 될 것”을 약속하며 다짐했다.

이어 진행된 2026년 올림픽 전주 유치 기원 퍼포먼스는 문학이 지역 사회의 영연과도 함께 호흡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창립대회에 참석한 한 회원은 “여러 단체로 나뉘어 활동하며 느꼈던 갈증이 오늘 해소된 기분”이라며 “전북 수필가들은 자부심을 품고 다시 펜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전북수필가협회는 향후 전북 수필 문학상 운영, 신진 수필가 발굴, 지역 문화예술 활동 참여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적박한 문학의 토양 위에 ‘수필’이라는 이름으로 뿌려진 오늘의 씨앗이 장차 어떤 울창한 숲을 이룰지, 전북 문단의 시선이 이곳으로 쏠리고 있다. /01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이삼일 변호사 위촉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4일 도청에서 위촉식을 열고 법무법인 길담 소속 이삼일 변호사를 감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전임자의 사직에 따른 보궐 인사로, 이삼일 신임 감사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 규정에 따라 2027년 2월 6일까지다.

이 감사위원은 사법연수원 40기 출신으로 전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법무사무소 길담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법조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위촉으로 여성 변호인이 감사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감사 행정의 객관성과 균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01만호 기자



### 건협 전북,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응원 캠페인 동참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소재철 회장이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릴레이 응원 캠페인에 참여했다.

소재철 회장은 지난 23일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릴레이 응원 캠페인에 동참하며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캠페인은 전북지역의 올림픽 유치 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기관과 단체 대표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전주 하계올림픽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 인사들이 참여하면서 유치 분위기가 확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오상근 기자



### 남원 농어촌공, 상습 침수지역 주민설명회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안재호 지사장)는 24일, 금지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남원시와 금지면 이장단 지역 농업인, 공사 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기철 대비 상습 침수지역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지면 일대는 극한 강우 시 도하 소하천 제방 여유고 및 방형배수로 통수능력 부족으로 소하천 범람과 저지대 하우스 단지 집단화로 침수 시 농작물 및 시설물 등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다.

남원지사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으로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강우 시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남원지사는 중장기 대책으로 현재 기본계획 중인 귀석지구 배수 개선사업(준공 2031년 12월 예정)을 통해 펌프장 추가 설치와 배수로 단면을 확장하고, 남원시에서 추진 중인 도하천 정비사업(준공 2030년 12월 예정)을 통해 통수 및 배제 용량을 확대해 금지면 일대 상습 침수지역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부안군 농민회, 영농발대식 개최

부안군 농민회(회장 배달승)는 24일 행안면 부안중앙농협(구)미곡처리장에서 영농발대식을 열고 올 한해 영농의 무탈과 풍년을 기원했다고 밝혔다.

부안군 농민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정화영 부군수와 지역 내 기관·사회단체장들과 농업인 등 300여명이 참석해 더욱 자리를 빛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영농철을 맞이하는 고천문 낭독, 농민의 건강과 한해 풍년을 기원하는 풍년기원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전국 3위 성과, 도민에게 돌려준다... 전북소방, 1500만원 기탁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24일 화재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500만원을 지정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소방청이 주관한 2025년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에서 전북소방본부가 도 단위 전국 3위를 기록하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을 활용한 것으로, 소방정책 추진 성과를 도민에게 다시 환원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기탁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화재피해주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며, 주택 복구 및 생활 안정 지원 등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는 데 활용된다.

전북소방본부는 그동안 ‘119행복하우스’(화재 소실 주택 신축 지원)와 ‘119안심하우스’(화재피해주택 수리 지원) 등 화재피해주택 복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기탁 역시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에서 도민 중심 행정을 실천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01만호 기자

## 진안 용담면민의 장 수상자 선정... 공익장 포함 총 4명

진안군 용담면은 지난 지난 20일 심사위원 6명으로 구성된 면민의 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0회 용담면민의 장 수상자를 선정했다.

올해는 공익장 산업장 애환장 효행장 4개 부문으로 총 4명이 영예로운 수상의 주인공이 되었다.

공익장은 문상철(75)씨로 약 20년 간 환경정화활동, 15년간 자원봉사, 22년간 방범대·소방대 활동으로 용담면의 깨끗한 환경유지, 치안 화재예방 등 다양한 봉사로 지역 발전에 헌신해왔다.

산업장은 김기원(63)씨로 약 10년간 깃잎작목반 활동을 이어오며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깃잎 연구와 홍보 및 소득증대 향상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했다.



공익장 문상철 '산업장 김기원



애환장 신태우 '효행장 강남숙

애환장은 재경향 우회 전 회장 신태우(70)씨로 용담면 수천리 출신으로 용담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서울에서 재경향우회를 이끌며 관내·관외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애환심을 실천했다.

효행장은 강남숙(65)씨로 용담면 월계리 출신으로 인천에서 생활하다가 늙은 시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왔다. 아픈 시부모님의 건강관리, 약물부여, 요양에 헌신하며 티의 모범이 되었다.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다가오는 4월 4일 용담면 체련공원에서 개최되는 제30회 용담면민의 날 기념식에 서 있을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남원 동충동,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안전교육



남원시 동충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박미라)는 3월 24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공익형)에 참여하는 어르신 4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참여 어르신들 대상으로 낙상사고 예방, 교통안전, 노인 자살예방 등 연령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내용으로 진행, 특히 이번 교육은 체험 및 참여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안전 취약계층의 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을 높이고 응급상황 발생 시 올바른 대처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데 중점을 뒀다. /남원=김기두 기자

### 주천면 지사협, 지리산길 흑염소에 착한가게 현판



남원시 주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4일, 착한 나눔에 동참한 지리산길 흑염소(대표 최광식)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최광식 대표는 “뜻깊고 좋은 일을 하게 되어서 더 힘이 나는 거 같다. 기회가 된다면 지인들에게도 착한가게 캠페인을 널리 알리고 싶다.”라고 전했으며, 협의체 김영근 위원장은 “기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선행 동참해 준 지리산길 흑염소 최광식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소방서, 119구급대 운영실태 점검

남원소방서가 불철 행락객 증가로 인한 인구 이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맞아 119구급대 근무기간 확장과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급대 운영 및 복무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구급차 내 필수 의료장비와 구급 의약품, 통신장비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행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다수사상자 대응물품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화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안실단은 노사민정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 지역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추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서부지방산림청이 새롭게 참여해 교육·훈련과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문화 확산 범위가 확대됐다.

안실단은 앞으로 릴레이 캠페인 맞춤형 안전 컨설팅, 지역행사 연계 홍보 등을 통해 산업현장뿐 아니라 도민 전반으로 안전의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01만호 기자

### 전북 안전문화실천추진단, 1분기 정기회의

전북지역 산업현장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민관 협력 활동이 본격화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상열)는 24일 전주 그랜드힐스호텔에서 ‘전북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 1분기 정기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전북특별자치도 등 유관기관 및 사업장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4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현장 중심 안전문